

국별 리포트

러시아 국가신용평가 리포트

2011. 1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17,098천km ²	G D P	14,794 억 달러
인구	140.37 백만명	1 인 당 G D P	10,440 달러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연방공화제)	통화단위	Russian Ruble(RUB)
대외정책	미국의 일방 독주 견제, 자국 역할 증대 방안 모색	환율(달러당)	30.38

- 세계 최대의 영토와 풍부한 천연자원, 세계적인 과학기술력 및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국가임.
- 1991년 구소련 체제 붕괴 이후 1998년에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했으나, 2000년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에 힘입어 2008년까지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세를 기록했음.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침체로 BRICs 국가 중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2009년 말 이후 더딘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러시아는 석유 및 가스 분야에 편중된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불투명한 제도, 만연한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 등이 외국인투자 유치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제성장률	8.5	5.2	-7.8	4.0	4.0
재정수지/GDP	5.4	4.1	-5.9	-4.0	-0.8
소비자물가상승률	9.0	14.1	11.7	6.9	8.6

자료: IMF, EIU

□ 경제성장률은 완만한 회복세 유지

- 2010년 러시아 경제는 유가 상승, 정부의 부양정책 효과 가시화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4%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음.
- 2011년에는 실질임금 상승, 농산물 풍작, 2011년 12월 총선 및 2012년 3월 대선을 앞둔 경기부양책 확대 등에 따라 전년과 유사한 4% 수준의 완만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분기별 경제성장률 동향을 살펴보면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4.1%를 기록해 예상보다 더딘 경제성장세를 나타냈으며, 2분기에는 3.4%로 성장이 둔화되었음.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럽 재정위기 확산 및 미국의 더블딥 우려 등 대외 경제여건 악화가 러시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2011년 1인당 GDP가 12,699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소득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는 소폭 상승

- 201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가격 급등,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완만한 상승 폭을 보이며 2009년의 절반 수준인 6.9%를 기록했다.
- 2011년에는 식료품 가격이 정상을 되찾으며 2011년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0년 9월 이후 최저치인 7.2%를 기록하기도 했음. 그러나 연평균 기준으로는 실질임금 상승 및 실업률 감소에 따른 내수 회복과 사회보장성 지출 확대에 따라 전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8.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 폭 축소로 균형 수준 근접

- 러시아 경제는 2009년 재정수지 적자로 전환되었으나 2010년 이후 고유가에 힘입어 적자 폭은 점차 축소되고 있음.
 - 2010년 1~3분기 중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2.2%를 기록하는데 그쳤으나, 4분기에 집중된 과다한 예산 집행으로 다시 소폭 확대되어 GDP 대비 4%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됨.
- 2011년에는 국방관련 비용 증대, 보건, 교육 등 복지 분야의 지출 확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11년 1~9월 평균 우랄산 원유 가격은 108.92달러/배럴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GDP 대비 0.8% 규모의 소폭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1년 1~7월에는 고유가와 계획 대비 낮은 재정지출로 GDP 대비 2.5% 수준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하반기 세출 집중과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확대로 소폭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2. 경제구조 · 정책

□ 에너지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한 경제구조

-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원유, 천연가스)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 경제전반이 큰 영향을 받는 구조임.

* 에너지 산업 의존도: 총수출의 57%, GDP의 약 21%, 재정수입의 약 48%

- 2010년 이후 고유가로 에너지 수출 및 관련 세입이 증가해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취약한 경제구조 개선이 필요함.

□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GDP 기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 러시아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도 1억 4천만 명에 달해 내수기반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또한 2010년 기준 GDP규모가 1억 4,794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11위(2009년 12위 기록)의 경제대국임.

* 원유(2010년 말 기준): 확인매장량(774억 배럴) 세계 7위, 생산량(연간 5.1억 톤) 세계 1위

* 천연가스(2010년 말 기준): 확인매장량(44.8조 입방미터) 세계 1위, 생산량(연간 5,889억 입방미터) 세계 2위

□ 산업구조 다양화를 위한 경제현대화 정책 추진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과도한 원자재 분야 의존, 산업경쟁력 부족 등에 따른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생산의 현대화 및 기술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경제현대화는 5대 전략산업에 대한 중점육성과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을 골자로 하고 있음.
- * 5대 전략산업: 에너지 효율화(신연료 개발 등), 원자력 기술, 우주 기술, 의료기술(진단장비 및 의약품 포함), 전략정보기술(슈퍼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 이와 더불어, 러시아 정부는 R&D에 종사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모스크바 외곽의 스킨코보(Skolkovo) 지역에 첨단기술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파격적인 세제 혜택(향후 10년간 지대, 부가가치세, 수익세 면제)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지적재산권 보호, 부정부패 및 자의적인 법 집행 만연 등 투자환경이 열악하고 첨단산업 단지 조성 관련 인프라 구축이 미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됨.
- 2011년 3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경제현대화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10대 조치를 지시했음. 주요 내용은 가즈프롬 등 17개 주요 국영기업에서 총 8명의 부총리, 장관이 겸직하고 있는 이사직을 독립이사로 교체하고 민영화 일정을 확정하는 등 국영기업과 일반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부정부패 척결 관련 조치 및 기업의 사회보험부담률 인하 등임.

□ 러시아 정부, 대규모 국영기업 정부지분 매각계획 발표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11년 6월 인프라 부문과 국가안보와 직결된 분야를 제외한 모든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지분을 지배지분(50%+1주)보다 감소하는 민영화 추진 일정을 수립하도록 지시했음.

- 2011년 7월과 10월에 스베르뱅크(Sberbank), VTB(Vneshtorgbank), 로셀크호즈뱅크(Rosselkhozbank) 등의 국영은행, 로스네프트(Rosneft), 루시드로(RusHydro), 소브콤플로트(Sovkomflot) 등 핵심 국영기업 등 11개 주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되, 정부지분 50%+1주는 유지하는 약 200억~300억 달러 규모의 정부지분 매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2011년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보다 적극적인 민영화 계획 수립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재무부는 향후 3~5년간 최대 총 75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핵심 국영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 상 수 지	77,768	103,530	48,605	71,129	89,638
경 상 수 지 / G D P	6.0	6.2	4.0	4.8	4.9
상 품 수 지	130,915	179,742	111,585	151,393	186,921
수 출	354,401	471,603	303,388	400,131	504,619
수 입	223,486	291,861	191,803	248,738	317,698
외 환 보 유 액	465,878	412,548	416,649	458,315	559,567
총 외 채 잔 액	471,000	480,500	471,600	474,600	482,900
총 외 채 잔 액 / GDP	36.1	28.8	38.0	31.9	28.6
D . S . R .	25.2	26.3	27.9	22.0	19.4

자료: IMF, EIU

□ 상품수출 증가세 유지

- 2010년에는 유가 상승에 따라 상품수출 증가세가 회복되면서 전년 대비 31.9% 증가했으며, 2011년에도 국제 원자재 수요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26.1%의 수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흑자 규모 소폭 확대

- 2010년 러시아의 경상수지는 고유가에 힘입어 GDP의 4.8% 규모인 71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음. 이는 상품수출 규모가 31.9% 증가한 데 비해 상품수입은 29.7%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임.
- 2011년 상반기 상품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지속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563억 달러를 기록했음. 상품수지 흑자도 전년 동기의 86억 달러에서 102억 달러로 확대되었음. 2011년 전체 경상수지 규모는 GDP 대비 4.9% 수준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러시아의 열악한 투자환경과 국제 경기침체에 따라 자본유출이 지속되어 자본수지 적자가 2010년 상반기 31억 달러에서 2011년 상반기 287억 달러로 급증했음.

□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의 14개월 분 이상 유지

- 2009년 이후 외환보유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 외환보유액 규모도 4,583억 달러로 월평균수입의 14개월 분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2011년에는 고유가 지속, FDI 유입 증가에 따라 5,596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루블화 가치는 완만한 상승세 기록

- 2009년 2월 달러당 35.8루블까지 하락했던 루블화 가치는 유가 상승 및 해외 자본 유입에 힘입어 2010년 중 달러당 29.2~31.2루블 수준을 유지했으며, 2010년 연평균 달러당 환율은 30.38루블을 기록했음.

- 2011년 상반기에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루블화 절상 압력이 강화되었으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러시아 중앙은행은 9월에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인 60억 달러의 보유외환을 투입해 환율을 방어했음. 2011년 연평균 달러당 환율은 달러당 28.84루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총외채잔액 규모는 전년 수준 유지

- 2010년 총외채잔액은 4,746억 달러 수준으로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수출과 GDP 규모가 증가하면서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각각 98.5% 및 31.9%로 개선되었음. 2011년 총외채잔액 규모는 전년과 유사한 4,829억 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원리금상환 부담은 점진적 완화 추세

- 2010년에는 수출증가세 회복으로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2%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2011년에는 이보다 다소 낮은 19.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러시아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안정

□ 푸틴 총리는 2012년 대선 출마 계획 발표

- 2008년 5월 푸틴 전 대통령의 후계자인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으로, 푸틴 자신은 총리로 각각 취임한 이후 정부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음.

- 취임 이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경제현대화를 강조하는 등 과거 푸틴이 추구했던 정책과 차별화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으며 국정 운영과 관련 푸틴 총리와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왔으나 기본적으로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음.
- 2011년 9월 24일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전당대회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푸틴 총리(2000~08년 대통령 재임)가 2012년 여당 후보로 대선 출마할 것을 권유했으며 푸틴 총리가 이를 수락함.
- 푸틴 총리의 대선 출마가 확실시됨에 따라 단기적인 정치적 안정은 강화되었으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법치주의 확립, 부정부패 척결, 국가 통제주의 축소를 강조해 왔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으며, 푸틴 출마 선언에 따라 단임에 그치게 되면서 푸틴의 2012년 3선 도전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 * 현재 푸틴 총리의 국민 지지도는 60%를 상회하고 있어 2012년 3월 3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2. 사회 및 소요사태

□ 실업률 안정으로 사회불안 가능성 낮음

- 2000년대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계층간, 지역간 빈부격차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2008년 하반기부터는 금융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9.4%(2009년 2월 기준)까지 상승했으나 2010년 하반기 이후 6%대를 유지하고 있어 다소 안정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2011년 1~4월에는 다시 7%대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5월 이후 6%대로 하락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2009년 이후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연금, 공공부문 급여 및 실업자 보호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수준은 유지하고 있어 대규모 사회불안 가능성은 낮음.

□ 국지적인 소규모 소요사태 발생

- 2008년 이후 2010년 3월 모스크바 지하철 테러, 2011년 1월 모스크바 공항 테러, 2월 다케스탄 자살폭탄 테러 등 사회소요가 끊이지 않고 있음.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테러조직에 대한 엄정한 처리 방침을 유지하는 한편, 북코카서스 지역의 사회·경제 여건 개선을 통해 반정부세력을 무력화하는 강온 양면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러시아에는 현재 주도적인 야당 세력이 없어 현 정권을 위협할 만한 대규모 소요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유일한 야당 세력인 러시아연방 공산당(CPRF)의 세력은 미약하고 대부분의 노동조합도 친정부 성향임.

3. 국제관계

□ 미국, EU 등 서방 국가와의 관계 개선

-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러시아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협력하는 한편, 미국은 러시아의 WTO 가입을 지지하는 등 부시 대통령 시절 냉각되었던 양국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음.
- EU와도 공공관심사인 에너지안보, 과격주의 세력 척결 및 핵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정상회담에서는 EU가 러시아의 WTO 가입 지지의사를 공식 표명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음.

□ 중국과의 협력 강화

-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공동의 목적 하에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러시아는 특히 아시아 지역까지 에너지 수출시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CIS 지역에서의 영향력 회복 모색

- 구소련 국가에 대해서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및 유라시아경제공동체(EEC)를 중심으로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여 역내에서의 영향력 회복을 모색하고 있음.
- 2009년 가스 대금을 둘러싼 분쟁을 겪었던 우크라이나와는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 집권에 따라 관계 개선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 7월 발효된 벨로루시와 카자흐스탄과의 관세동맹을 통한 역내 경제통합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 평가

□ 2009년 하반기 이후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향 추세

- OECD는 2009년 10월 러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등급 하향 조정한 후 2010년 1월 국가신용도 평가회의에서도 이를 유지했으나 2011년 1월 개최된 OECD 국가신용도 평가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지표 개선, 외국인투자 유입 지속, 양호한 외채현황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조정해 최근 러시아 경제의 회복세를 반영했음.

- 2009년 하반기 이후 러시아 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냄에 따라, S&P는 2009년 12월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부정적(BBB/Negative)에서 안정적(BBB/Stable)으로 조정했고, Fitch는 2010년 1월 등급 전망을 부정적(BBB/Negative)에서 안정적(BBB/Stable)으로 조정한 후 9월에 다시 긍정적(BBB/Positive)으로 상향 조정함. Moody's는 2008년 12월 전망을 긍정적(Baa1/Positive)에서 안정적(Baa1/Stable)로 조정했음.

* Euromoney: 52/185('10.9.) -> 57/186('11.3.)

I.I.: 47/178('11.3.) -> 44/178('11.9.)

ICRG: 48/140('10.10.) -> 45/140('11.9.)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수은: 제한적 인수 가능
- 영국 ECGD: 중단기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단기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음.

3. 외채상환태도

2005년 IMF 차관 조기상환

- 2005년 1월 IMF 대기성차관 33억 달러를 조기 상환했으며, 2005~06년 2년에 걸쳐 파리클럽채무 430억 달러도 전액 조기 상환함에 따라 IMF 등으로부터 추가 차관을 받을 가능성은 낮음.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연체비중 미미

- 2010년 9월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인수승인잔액은 단기 36억 달러, 중장기 328억 달러이며, 이 중 단기 1,500만 달러(0.4%) 및 중장기 2.4억 달러(0.7%)가 연체 중이며 중장기 연체금액 중 1,980억 달러는 회수불능 상태이나, 인수승인잔액 대비 연체금액 비중은 크지 않은 편임.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 · 러시아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2008	2009	2010	'11.1~10	주요품목
수 출	9,747,957	4,194,066	2,973,966	8,731,714	자동차,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수 입	8,340,060	5,788,759	4,956,283	8,774,321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합 계	18,088,017	9,982,825	7,930,249	17,506,035	

*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국교수립: 1990. 09. 30. (북한과의 수교 : 1948. 10. 12.)

□ 주요협정: 형사사법공조조약, 원자력협력협정(이상 '99), 에너지분야 협력협정('00), 관광협정('01), 항공협정('03), 우주기술협력 협정, 가스산업협정('06), 비자협정('10), 해상운송협정('11)

□ 2010년 양국간 교역량 회복세 시현

- 러시아와 한국은 1990년 9월 국교를 수립한 이래 양국간 경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2009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2010년 말 기준 177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음. 2011년 1~9월 기준 교역량은 157억 달러(수출: 79억 달러, 수입: 7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5위 수출상대국이자 수입상대국임(2010년 말 기준).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그 부품, 합성수지 등이며 수입품목은 원유, 석탄 및 천연가스 등 1차 산업임.

□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감소세

-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2011년 6월 말 기준 18.9억 달러(415건)로, 2006~09년 연도별 투자금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010년 연간 투자액은 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3% 감소했음. 2011년 1~6월 중 투자액은 크게 감소해 3,293만 달러에 그쳤음.

□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기대

-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이해 9월과 11월 두 차례의 정상회담 외에도 한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등을 통해 상호호혜적인 협력 분야 발굴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전기가 마련되었음.
- 2011년에도 10월 한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11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와 러시아 경제현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으며, 특히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확인했음.

V. 종합의견

- 러시아는 2009년 하반기 이후 고유가에 힘입어 점진적인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1인당 국민소득이 고소득국 수준으로 상승했고, 재정수지 적자 폭이 크게 개선되어 관리가능한 상태임. 그러나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 미국의 더블딥 우려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러시아 거시경제 현황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원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수출이 총수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등 유가의 향방에 경제가 좌우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산업구조 다양화를 위한 경제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1년 9월 푸틴 총리가 내년 3월 대선에 출마할 계획을 밝혀 정치적 불안정성이 야기될 가능성은 낮으나 민주주의의 후퇴가 우려되고 있음. 메드베데프 대통령 재임 중 미국 및 EU와의 관계는 개선되었으며 중국과의 협력관계 또한 강화되고 있음.

- 2009년 하반기 이후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했으며, OECD는 2011년 1월 국가신용도 평가 회의에서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바 있음.

책임조사역 허정옥 (☎02-3779-5708)

E-mail : johuh@koreaexim.go.kr